관광안내전화 **1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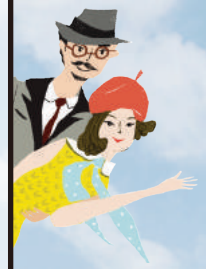
인천종합관광안내소	032-832-3031
강화관광플랫폼	032-934-7500
인천투어	http://itour.incheon.go.kr
인천관광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discoverincheon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도 인천 관광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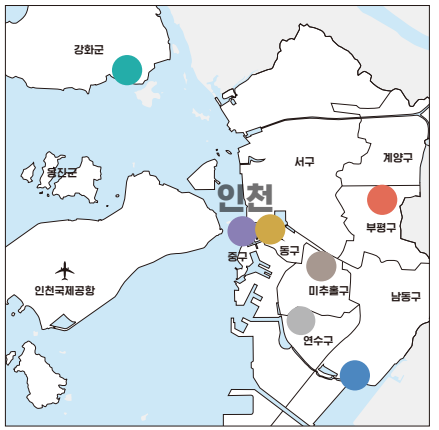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 인천관광공사 Incheon Tourism Organization

인천 원도심 여행 가이드북

모던보이 모던걸처럼 인천 올드타운을 걷다



INCHEON OLD TOWN STORY



모던보이 모던걸처럼 인천 올드타운을 걷다

1920년대 인천 개항장을 중심으로 모던걸과 모던보이가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머리모양과 의상을 선보이며 유행을 이끌었지요.
단순히 외양만 다르게 꾸민 젊은이들은 아니었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생활 양식을 선보이며 자신들의 고유한 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인천 원도심도 그렇습니다. '미추홀'과 '매소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1883년 개항 이후 근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비구비 이어져온 오랜 역사 위에 젊은이들이 새로운 꿈을 풀어놓고 있답니다.
인천의 예스러운 정취를 밟으면서도, 도시 곳곳에서 펼쳐지는 신선한 도약을 엿볼 수 있는
여섯 개 테마 여행 코스를 담아보았습니다.
인천 토박이 어르신과 인천에 갓 터를 잡은 젊은이를 모두 만날 수 있는
인천 올드타운을 함께 걸어볼까요?

04
개항장 타임머신
박물관과 전시관을
오가는 역사 탐험

1. 제물포구락부
2. 인천중구청
3. 근대건축전시관
4. 인천개항박물관
5. 대불호텔·중구생활사전시관
6. 인천아트플랫폼
7. 신포국제시장

08
배다리 한 페이지
헌책방에서 발견하는
추억 읽기

1. 나비날다 책방
2. 요일가게-다 괜찮아
3. 배다리 전통공예거리
4. 배다리 헌책방거리
5. 마을사진관 다행·
   갤러리카페 한점으로부터
6. 창영초등학교·영화초등학교·
   여선교사합숙소

12
부평을 쇼핑하다
전통 재래시장부터
핫 플레이스까지

1. 부평모두몰
2. 부평문화의거리
3. 평리단길
4. 부평자유시장
5. 부평깡시장
6. 부평해물탕거리

16
소래는 살아있다
바다·습지·도시가 공존하는
신비로운 트레일

1. 소래역사관
2. 소래철교
3. 소래포구·소래어시장
4. 소래습지생태공원
5. 인천대공원

20
어서오시겨! 강화
옛 건물에서 발견하는
모던한 감각

1. 강화관광플랫폼
2. 용흥궁
3. 대한성공회강화성당
4. 고려궁지
5. 조양방직
6. 소창체험관

24
미추홀을 거닐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흥겨운 한마당

1. 인천향교
2. 인천도호부청사
3.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4. 인천문학경기장

26
바람 불면 배 띄우던
백제사신길

27
옛 이야기 한 그릇
인천 올드타운 맛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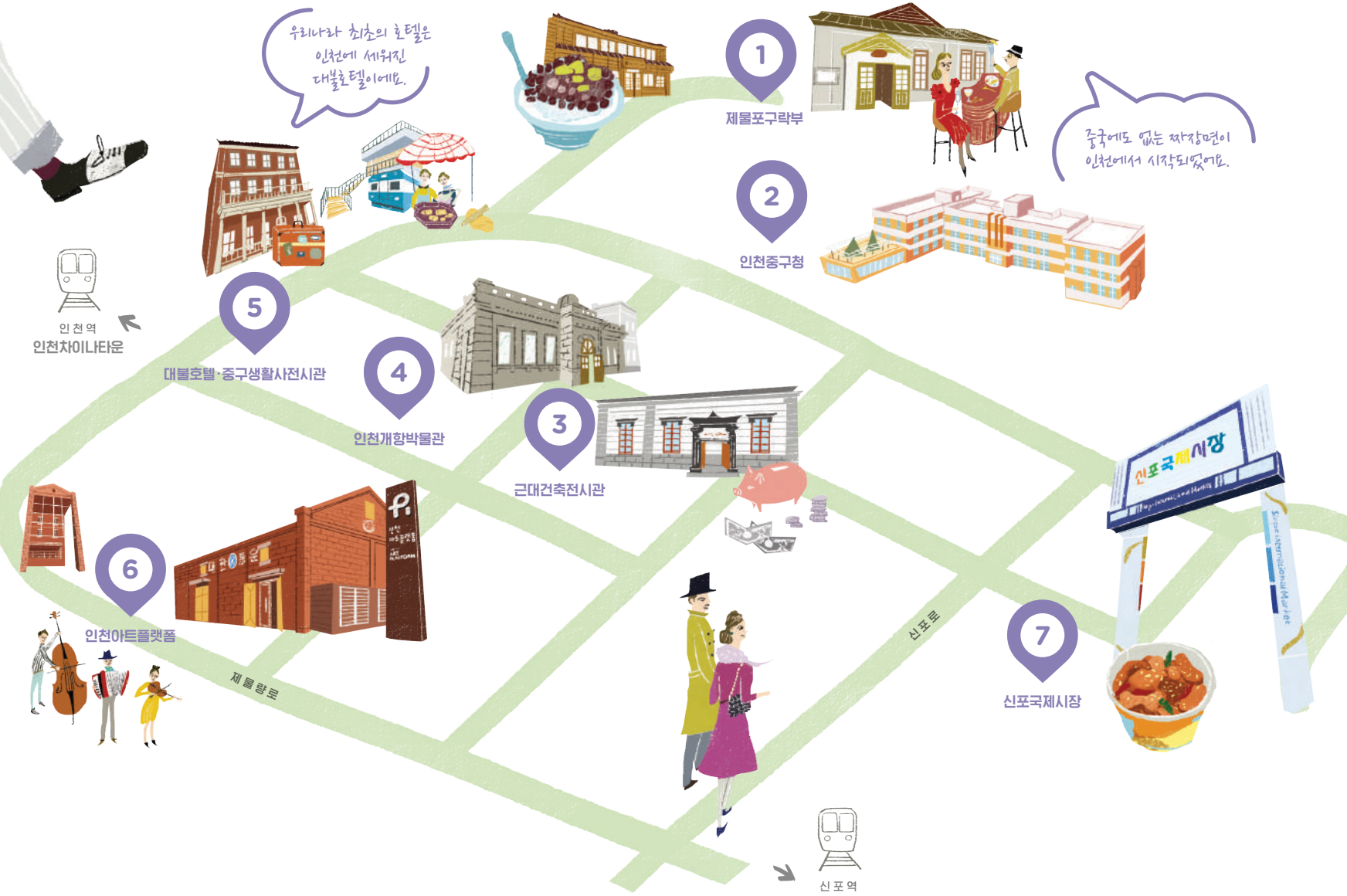
발행일 2018년 7월 **발행처** 인천광역시·인천관광공사 **기획** (주)에이지커뮤니케이션즈 02-763-8600

이 책의 저작권은 인천관광공사와 (주)에이지커뮤케이션즈에 있으며, 무단 전재나 복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정보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항장 타임머신

박물관과 전시관을 오가는 역사 탐험

인천 개항장은 1883년 개항하면서 외국인이 거주하던 구역이었다. 이국적인 건축양식으로 지은 건물은 19세기 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각기 쓰임을 달리하며 독특한 역사를 이어왔다. 이 오래된 건물에 들어선 현대적인 카페, 박물관과 전시관에 들르며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더 가볼 만한 곳

개항장 카페들

개항장 거리 곳곳에 옛 정취를 물씬 풍기는 카페들이 즐비하다. 일본식 목조건물로 되어 있는 '카페 팟알'에서는 여름에는 팥빙수, 겨울에는 단팥죽을 맛볼 수 있다. 1930년대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관동오리진', 직접 만든 공예품을 살 수 있는 '서니구락부' 등도 있다.

위치 카페 팟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96-2
관동오리진: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96
서니구락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3번길 80

제물포구락부 1 — 인천중구청 2 — 근대건축전시관 3 — 인천개항박물관 4 — 대불호텔·중구생활사전시관 5 — 인천아트플랫폼 6 — 신포국제시장 7

1 다국적 제물포 클럽 **제물포구락부**

1883년 인천이 개항하면서 중국, 일본을 비롯해 영국, 독일, 러시아 등의 국적을 지닌 외국인이 제물포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들은 사교 모임을 갖고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 '클럽'이라는 의미의 제물포구락부를 열었다. 지금도 그때 그 시절의 당구대와 도서실 등이 남아있다.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남로 25 **연락처** 032-765-0261
운영 시간 09:30~17:30(12:00~13: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휴관

2 모더니즘 건축물의 발견 **인천중구청**

1883년에 건립되어 일본 영사관으로 쓰이던 건물이다. 증기 난방 시스템과 수세식 화장실 등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던 최신 설비를 갖추어 화제가 되었다. 이후 증축과 신축을 거치며 인천부청사, 인천시청사 등으로 쓰였다. 지금은 중구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연락처 032-760-7114

3 건축물 역사 기행 **근대건축전시관**

일본 나가사키에 본점을 둔 18은행. 우리나라에서 면직물 중개무역으로 수익을 거두자, 1890년 인천에 지점을 냈다. 18은행 건물을 개조한 근대건축전시관에서는 과거 개항장에 마련되었던 외국인 거주 구역인 조계지 풍경과 근대 건축물을 볼 수 있다.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3번길 77 **연락처** 032-760-7549
운영 시간 09:00~18:00 **입장료** 500원

4 개항의 모든 것 **인천개항박물관**

과거 개항장에 들어섰던 일본제1은행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후기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 개항장 거리의 1930년대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개항기에 사용하던 우표와 동전 같은 우리나라 '최초'의 물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자.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3번길 89 **연락처** 032-760-7508
운영 시간 09:00~18:00 **입장료** 500원

5 생생한 시대 경험 **대불호텔·중구생활사전시관**

대불호텔은 우리나라 최초로 커피를 팔아 큰 호응을 얻은 곳이에요.

개항 후, 배를 타고 들어온 이방인이 서울로 들어가려면 인천에 묵을 시설이 필요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바로 '대불호텔'이다. 1880년대에 세워졌으나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된 이후, 서울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 지면서 청요릿집 '중화루'로 바뀌었다. 지금은 중구생활사전시관으로 새단장하고 이 모든 역사를 담고 있다. 제1관은 대불호텔 전시관이다. 대불호텔 터가 발견된 위치에 건물 외관을 재현해 전시실로 조성했다. 제2관은 1960~1970년대 생활사전시관으로, 당시의 생활사를 생생하게 경험해볼 수 있다.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3번길 101 **연락처** 032-760-786
운영 시간 09:00~18:00 **입장료** 1000원

6 옛 건물에서 만난 현대 예술 **인천아트플랫폼**

1888년에 지은 일본우선주식회사, 1948년에 지은 대한통운을 비롯한 근대 개항기 창고 건물이 창작스튜디오, 전시장, 공연장, 생활문화센터 등 총 13개 동으로 탈바꿈했다. 거대한 스트리트 뮤지엄에서 신예 예술가가 펼치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만나보자.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
연락처 032-760-1000

7 줄 서서 먹는 닭강정과 공갈빵 **신포국제시장**

19세기 말, 중국인이 일본인에게 푸성귀를 팔던 채소가게 20여 곳이 발전해 신포국제시장이 되었다. 언제나 가게 앞에 긴 줄이 이어지는 닭강정, 중국식 만두와 공갈빵은 꼭 먹어볼 것. 한 블록 건너에 있는 '사계절 눈이 쌓여 있는 마을'이라는 테마로 조성된 청년몰 '눈꽃마을'에도 들러보자.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49번길 11-5 **연락처** 032-772-5812

1 나비날다 책방
2 요일가게-다 괜찮아
3 배다리 전통공예거리
4 배다리 헌책방거리 (아벨서점/한미서점)
5 마을사진관 다행 갤러리카페 한점으로부터
6 창영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여선교사합숙소

배다리 한 페이지

헌책방에서 발견하는 추억 읽기

과거 바닷물이 드나들던 수로가 있던 마을이다. 배가 드나드는 다리가 있어 배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1960~1970년대에는 30~40여 곳의 헌책방에서 새학기 교과서를 사려는 학생들로 붐볐다고. 지금은 예스러운 상점 하나하나가 지역 커뮤니티로 남아있다.

더 가볼 만한 곳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1960~1970년대 인천 달동네의 향수를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해보자.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51

숭의평화시장·숭의목공예마을

이름은 시장인데, 안을 들여다보면 구석구석 창작 공간이 숨어 있다. 술을 빚거나 꽃차를 마시는 일일 체험도 가능하다. 숭의평화시장에서 멀지 않은 숭의목공예마을에도 들러보자.

위치 숭의평화시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78-17
숭의목공예마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1·3동

1 배다리길 안내소
나비날다 책방

이 책방의 내막을 모르는 채로 들어선다면 카운터를 지키는 게으른 고양이 한 마리를 보며 어리둥절할 것이다. 고양이의 이름은 '반달'이고, '나비날다 책방'의 공식 주인장이다. 목이 마르면 직접 차도 타서 마시고, 읽고 싶은 책을 골랐다면 무인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쉬었다 가면 된다.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8 **연락처** 010-9007-3427

배다리길을 안내해주는 작은 책방에서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2 요일마다 새로운 공간
요일가게-다 괜찮아

'요일가게-다 괜찮아'는 매일매일 주인이 바뀐다. 어떤 날은 클래식 기타를 연습하는 공간으로, 또 어떤 날은 핸드 드립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로 변신한다. 그냥, 뭐든 '다 괜찮은' 문화공간에서 배다리길 사람들을 만나 진짜 인천 이야기를 들어보자.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8 **연락처** 010-9007-3427

3 아기자기한 수공예품 가득!
배다리 전통공예거리

'요일가게'와 '나비날다 책방' 지하에 난 '배다리 전통공예거리'에는 모두 600여 개의 점포가 옹기종기 모여 있다. 염색, 가죽, 한지, 비즈를 활용해 만들어 진열한 것들은 모두 수공예품이다. 구매할 수도 있고, 만드는 법을 배워볼 수도 있다.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4

4 손때 묻은 이야기 발견
배다리 헌책방거리

지금처럼 도서관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학문에 갈증을 느꼈던 학생들이 자주 찾던 헌책방이 즐비하던 곳이다. 시 낭독회나 독서 토론회가 열리기도 하는 '아벨 서점'과 드라마 촬영지로 더 유명한 노란색 외관의 '한미서점' 등 헌책방에 들러 어린 시절에 읽던 책을 발견하고, 추억도 발견해보자.

위치 아벨서점: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5-1 한미서점: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9

5 마을사진관 다행·
갤러리카페 한점으로부터

두 개로 분리된 듯하면서도 하나로 이어진 이 공간은 갤러리이자, 카페이자, 마을 사진관이다. 고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고,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옛 배다리길 사진을 구경하거나 자신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주인장 '강'이 직접 음료도 내주고, 배다리길 이야기도 들려준다.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우각로 11 **연락처** 010-7389-0857

6 창영초등학교·영화초등학교·
여선교사합숙소

창영초등학교에는 3·1운동과 6·25전쟁 등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영화초등학교는 인천 지역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다. 여선교사합숙소는 19세기 말 미국 북감리교회 여선교사들이 합숙소로 사용했던 곳으로, 근대 건축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위치 창영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동구 우각로 15번길 16
영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동구 우각로 39
여선교사합숙소: 인천광역시 동구 우각로 57

부평을 쇼핑하다

전통 재래시장부터 핫 플레이스까지

과거에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올 정도로 규모가 큰 재래시장으로 유명했다면,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저렴한 가격에 패션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지하상가로 유명한 부평. 각종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쇼핑 메카 부평으로 떠나보자.

더 가볼 만한 곳

인천나비공원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거닐고, 체험하며 나비의 생태를 배울 수 있는 자연 학습 공간이다.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26-47

굴포먹거리타운

값이 싸고 종류가 다양한 식당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 식사 후에는 굴포천을 산책해도 좋다.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길주로 일대

부평시장역

혜리별관에 갔다면 브라우니와 아인슈페너를!

평천로

3 평리단길

부평 문화의거리

부평 모두몰은 단일 규모 최대 점포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어요!

2 부평문화의거리

부평역

1 부평모두몰 (부평역 지하상가)

주부토로

부평깡시장

5 부평깡시장

차유시장

4 부평자유시장

시장로터리

6 부평해물탕거리

시장로

부평테마의거리

대정로

1 부평모두몰 (부평역 지하상가) — 2 부평문화의거리 — 3 평리단길 — 4 부평자유시장 — 5 부평깡시장 — 6 부평해물탕거리

1 젊은이들의 쇼핑 메카 **부평모두몰**

'부평 모두몰'은 부평역사에 조성된 지하상가. 천장에 설치된 스크린으로는 이따금 파란 바닷물을 떠다니는 물고기를 볼 수 있다.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유행하는 패션 의류와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31개나 되는 출구가 있을 정도로 복잡한 이곳에서 길을 잃고 싶지 않다면 바닥을 유의해서 보자. 빨강, 파랑, 초록, 주황 등 네 가지 색의 길이 방향을 일러준다.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69 **영업시간** 10:00~22:00

2 토요일은 즐거워! **부평문화의거리**

예부터 자리를 지키던 주단, 침구, 한복 등 홈패션거리 옆으로 모든 세대가 이용하는 활력 넘치는 부평문화의거리가 있다. 1구역은 만남의 광장과 안내도가, 2구역에는 공연장이 자리한다. 3구역은 휴식을 취하기 좋은 분수광장과 공원이 있고, 4구역에는 포장마차가 즐비하다. 특히 젊은이들이 수공예로 만든 물건을 늘어놓고 판매하는 프리마켓에 꼭 가보자.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다.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일대 **연락처** 032-511-5890 **홈페이지** http://www.bcstreet.com

3 핫 플레이스 **평리단길**

부평문화의거리에서 몇 블록만 꺾어 들어가면 '평리단길'이 나온다. 과거 커튼골목으로 유명했던 거리에 개성 있는 카페가 들어서며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헤리별관'에 간다면 주인장이 직접 만드는 '브라우니'와 달콤한 생크림을 얹은 커피 '아인슈페너'를 마셔보자. '카페, 스물 하나'에는 주말에만 맛볼 수 있는 마카롱이 있다.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일대

4 부모님과 함께 장보기 **부평자유시장**

부평역 주변에는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닌 시장이 몰려 있다. 부평종합시장, 부평자유시장, 진흥종합시장, 부평지하상가 등등. 부평 주민들은 이 모든 시장을 그냥 '부평시장'이라 부른다. 그중 부평자유시장은 한때 서울에서도 장을 보러 올 정도로 컸다. 지금은 순대골목과 떡집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50 **연락처** 032-503-5922

5 거리 음식 냠냠 **부평깡시장**

부평 깡시장의 '깡'은 '경매'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지금도 도매시장으로 유명하다. 자유시장과 깡시장은 길 하나만 건너면 이어질 정도로 매우 가깝다. 족발, 어묵, 닭강정, 메밀전 등 바로 사서 먹을 수 있는 주전부리가 구미를 당긴다. 특히 종이컵에 담아 파는 돼지껍질이 명물이라고.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32번길 25
연락처 032-502-7175 **영업시간** 02:00~20:00

6 보글보글 **부평해물탕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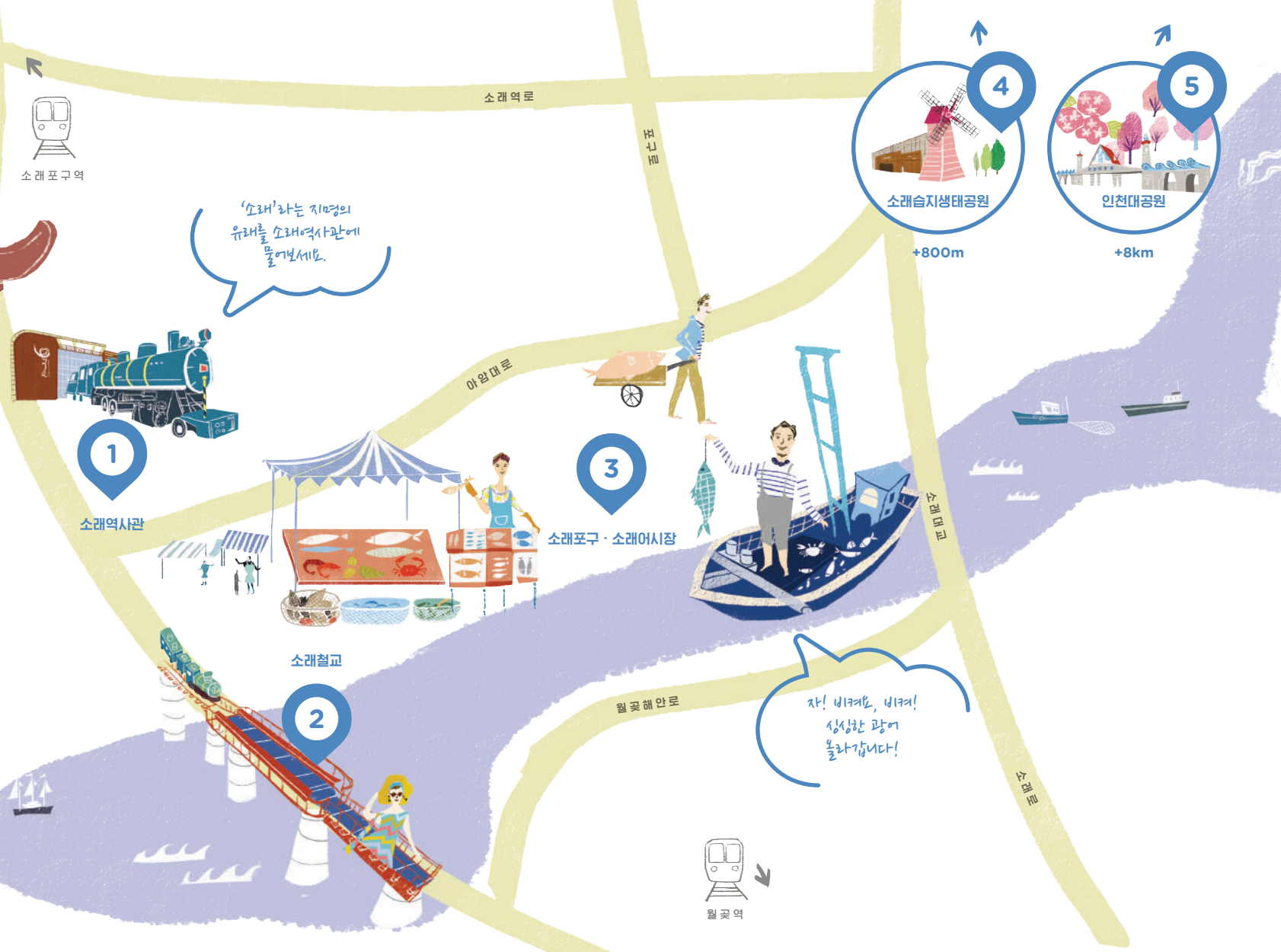
30~40여 년 전 해물탕집 세 곳으로 시작했다. 이후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입소문이 퍼지며 '거리'로 조성되었다. 1980년대에는 서울에서부터 찾아오는 사람들이 인천 사람보다 많았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한다. 지금은 10여 곳의 가게마다 특제 육수를 뽑아 탕을 끓인다. 연안부두와 소래포구에서 공급하는 싱싱하고 다양한 해물이 맛있게 어우러진다.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일대

소래는 살아있다

바다·습지·도시가 공존하는 신비로운 트레일

작은 포구마을이었던 소래가 알려진 것은 1930년대 염전이 생기면서부터다. 이곳에서 나오는 소금을 실어 나르던 협궤열차가 지나던 철교를 지금도 밟아볼 수 있다. 바다에서 금방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과 맛있는 젓갈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갯벌과 습지를 경험할 수도 있다.



더 가볼 만한 곳

늘솔길공원 양떼목장·편백나무숲

도심에서 유유자적하게 풀을 뜯는 양떼를 만날 수 있는 곳. 편백나무숲 산책로로 들어서면 나무 향기가 배어 있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38-8

1 소래역사관 — 2 소래철교 — 3 소래포구·소래어시장 — 4 소래습지생태공원 — 5 인천대공원

1 추억이 새록새록 소래역사관

소래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작은 배가 드나들며 고기를 잡고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채취하던 작은 포구 마을이었다. 소래역사관은 이러한 소래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 열차가 심하게 흔들릴 때는 맞은편에 앉은 사람과 무릎을 부딪쳤다는 수인선 협궤열차에 타보자. 소소한 옛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05 **연락처** 032-460-0590
운영 시간 10:00~18:00(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휴관, 월요일 휴무) **입장료** 500원

2 꼬마열차가 달리던 길 소래철교

소래역사관 건물 앞에 전시되어 있는 수인선 협궤열차는 1937년에 개통해 1995년에 운행을 중단했다. 소래역사관에서 길을 건너면 곧장 소래철교에 닿을 수 있다. '꼬마열차'라 불릴 만큼 작은 협궤열차가 달리던 레일은 폭이 일반 철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 철교 위를 찬찬히 건너면 바다 위를 걸어 반대편까지 가 닿을 수 있다. 밤이면, 과거에 소금을 나르던 철교를 밝히는 불빛이 바다를 물들인다.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3 팔딱팔딱 북적이는 바다 소래포구·소래어시장

한때 작은 나루터였던 소래포구는 1930년대에 염전을 일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알려졌다. 밀물 때면 작은 배들이 바다로 나가 새우, 꽃게, 민어, 홍어, 농어 등을 잡고, 썰물 때가 되면 다시 포구로 돌아와 그날 잡은 싱싱한 생선을 어시장에 쏟아낸다. 갓 잡아 올린 해산물을 구매하거나 맛보는 것도 좋은데, 조업을 마친 배들이 묶인 갯벌로 떨어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좋다.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운영 시간** 평일: 08:00~21:00, 주말: 07:00~22:00

4 맨발로 밟는 자연 학습장 소래습지생태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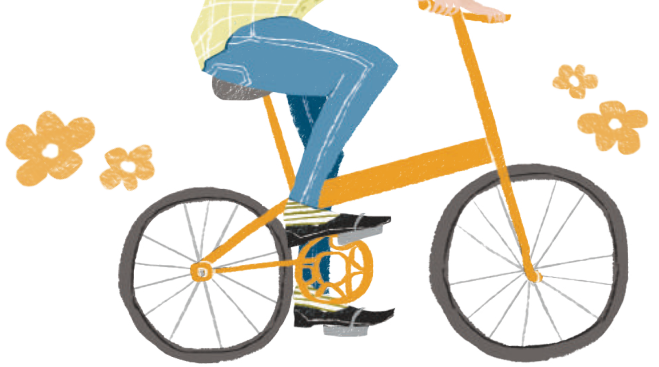
소래습지생태공원은 폐염전을 복구한 염전학습장, 염전창고를 개조한 생태전시관을 갖추고 있다. 바닷물을 퍼올리는 물레방아(수차)와 바둑판처럼 펼쳐진 소금밭이 아름답다.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소금을 채취하는 시간(매년 8~9월, 오후 4시)에는 직접 가래질을 해볼 수도 있다.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154번길 77 **연락처** 032-435-7076

5 도심 속 녹지 공간 인천대공원

인천대공원은 도심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는 광활한 녹지 공간이다. 식물원, 어린이 동물원, 자연생태원, 썰매장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로 나들이하기에도 좋고, 관모산, 상아산과 연결되어 있어 등산하기에도 좋다. 봄이면 벗꽃이 흐드러지며 절경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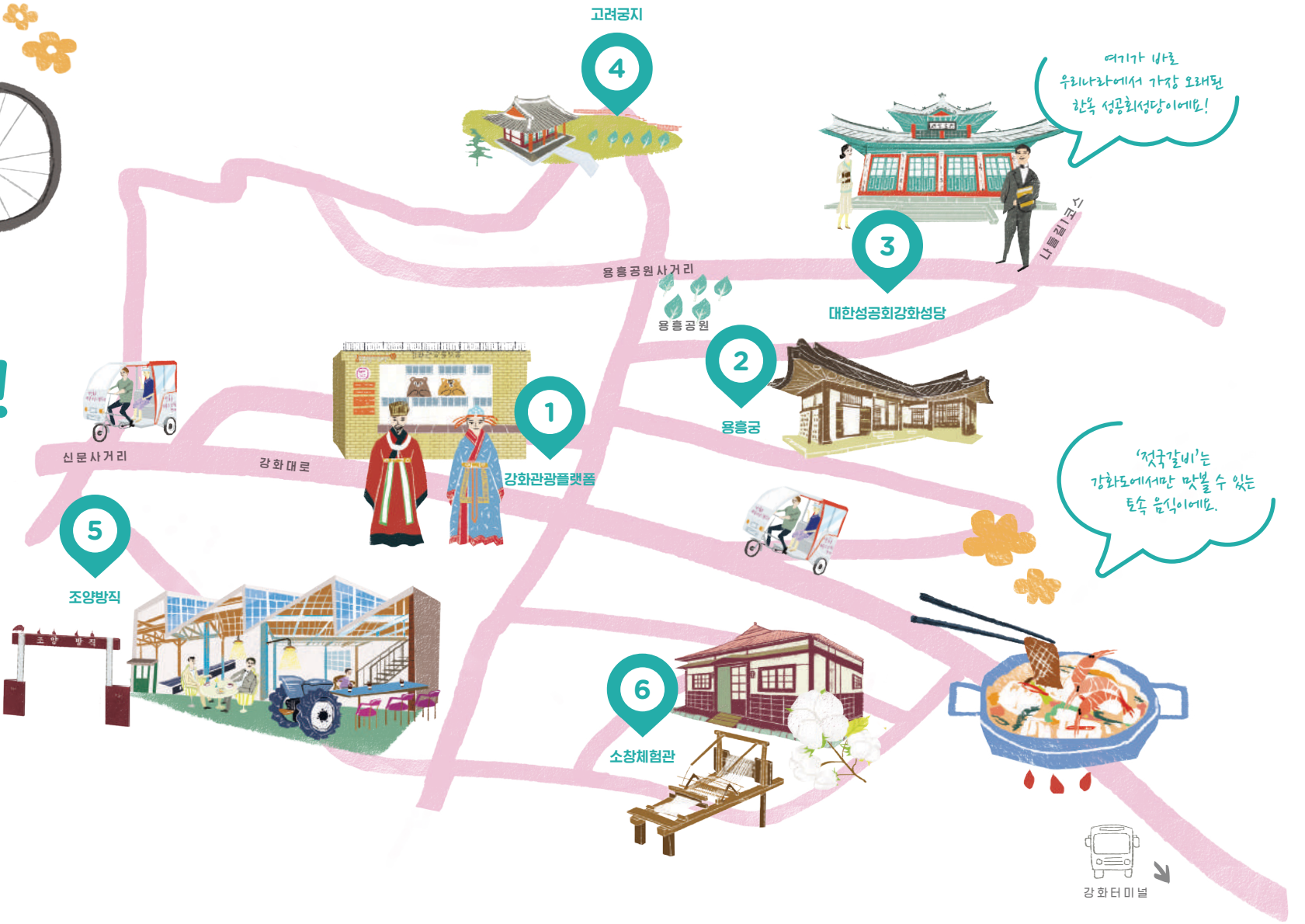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 **연락처** 032-466-7282
운영 시간 05:00~23:00(동절기 22:00까지)



어서오시겨! 강화

옛 건물에서 발견하는 모던한 감각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 강화도.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역사유적을 간직해 섬 전체를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부르기도 한다.
최근에는 오래된 건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문화체험공간이
신선한 매력을 더하고 있다.



더 가볼 만한 곳

강화평화전망대
북한까지의 직선거리는 2.3km 정도로 무척 가깝다.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서 개성공단과 송악산을 조망해보자.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797

강화이야기투어
친환경 전기자전거를 타고 강화산성 안을 돌며 역사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15분 코스부터 100분 코스까지 다양하다.
연락처 032-934-2628

1 강화관광플랫폼 — 2 용흥궁 — 3 대한성공회강화성당 — 4 고려궁지 — 5 조양방직 — 6 소창체험관

1 강화 여행의 시작점! 강화관광플랫폼

고려시대의 왕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하늘에서 내려다본 강화도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다면 강화관광플랫폼으로 향하자. 콘텐츠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VR 체험과 터치스크린으로 강화의 역사를 배우고, 고려시대 의상도 입어보자.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30 중앙시장 B동 3층
연락처 032-934-7500 **운영 시간** 10:00~20:00

2 강화도령의 옛집 용흥궁

'강화도령'으로 잘 알려져 있는 조선 제25대 왕 철종. 그가 왕위에 오른 후, 어린 시절에 살았던 강화에 기와지붕을 얹은 건물을 새로 짓고 이름을 용흥궁이라 하였다. 경내에는 철종이 살았던 집임을 표시하는 비석과 비각이 있다.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21번길 16-1
운영 시간 09:00~18:00

3 최초의 한옥 성당 대한성공회강화성당

대한성공회강화성당은 현존하는 한옥 성당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복궁을 지은 목수의 손길이 닿은 건물로 로마 바실리카 양식을 본뜬 데 더해, 지붕과 내부구조는 한국적 건축양식을 따라 지었다. 현재까지도 매주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길 27번길 10
연락처 032-934-6171

4 강화에서 발견한 고려 역사 고려궁지

고려궁지는 고려가 몽골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 개경에서 강화로 천도하여 마련한 궁터이다. 조선시대에는 고려궁지에 행궁, 강화유수부 등을 건립하였으나 대부분 소실되었고, 지금은 일부만 남아있다. 1964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연락처 032-930-7078
운영 시간 09:00~18:00

5 옛 방직공장 카페 조양방직

강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직물 생산지로 이름을 알렸다. '조양방직'은 1933년에 최초로 국내자본으로 지은 직물 공장이었다. 지금은 공장 내부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 예스러우면서도 모던한 카페로 변신했다. 990제곱미터가 넘는 공장 터와 건물 골조를 그대로 살려 엔티크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지금도 남아있는 우물터와 변압 시설을 구경하고, 재봉틀 테이블에서 커피도 마셔보자.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 5번길 12 **연락처** 032-933-2192 **영업 시간** 11:00~22:00

6 천연 면직물 체험 공간 소창체험관

예전에 '평화직물'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염색공장을 보수해 만든 강화 소창체험관. 이곳에서는 아이를 위한 기저귀나 수건을 만드는 천연 면직물 '소창'을 배우고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또한 강화 특산품인 화문석과 특산차 체험도 가능하다.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 20번길 8
연락처 032-934-2500
운영 시간 10:00~19:00

강화 토속 음식 젓국갈비

'젓국갈비'는 고려의 몽고 항쟁기에 강화도로 피난 온 왕에게 진상한 음식이다. 돼지갈비에 두부, 호박, 버섯 등을 넣고 강화도 특산물인 새우젓으로 간을 한 찌개다. 새우젓이 돼지의 누린내를 잡아주어 담백하다. 무처럼 시원하고 달콤하면서도 배추 뿌리처럼 알싸한 맛이 나는 강화순무김치도 곁들이면 강화도의 별미 한상이 완성된다. 강화도에 흩어져 있는 10여 곳의 식당에서 맛볼 수 있다.

돼지갈비와 새우젓의 완벽한 궁합으로 탄생한 젓국갈비를 맛보세요!

미추홀을 거닐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흥겨운 한마당

학이 살던 마을이라는 뜻의 지명이 많은 인천. 특히 도호부청사와 향교는 승학산과 문학산이 마주보는 곳에 자리한다. 조선시대 인천으로 떠나보자. 내친 김에 인천문학경기장까지 들르면 야구 경기도 관람하고, 아이들과 박물관 체험도 할 수 있다.

1 아이들의 학습 놀이터 인천향교

조선시대 지방민을 교육하던 기관인 향교. 지금도 아이들과 나들이하면 당시 건축물을 둘러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시험 보기, 전통 예술 체험, 강강술래, 백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초등학생을 위한 예절교실도 열린다.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89
연락처 032-876-7041

2 조선시대 민속 놀이마당 인천도호부청사

조선시대 행정을 담당했던 관청이다. 지금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기차기, 투호 등을 하거나 전통 민속 공연을 볼 수 있다. 과거에 사용하던 맷돌과 다듬이를 체험하거나 북, 징, 꽹과리, 소고 등 전통악기도 배워보자.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89
연락처 032-422-3492
운영 시간 하절기(3~10월) 10:00~19:00
동절기(11~2월)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무

3 전통 악기 체험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와 단체의 전승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상설 공연도 보고, 전통 공연과 전시도 관람해보자. 특히 인천시가 지정한 다양한 분야의 명인이 직접 악기를 만드는 방법이나 연주하는 방법을 알려주니 체험해보자.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99
연락처 032-440-8080

4 함성 가득! 인천문학경기장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해 완공된 스포츠 종합경기장이다. 야구 팬이라면 KBO리그 시즌에 맞춰 짜릿한 야구경기를 관람해보자. 축구경기를 관람하거나 공연을 감상할 수도 있다. 공원, 어린이박물관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나들이하기에도 좋다.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연락처 032-200-7500

바람 불면 배 띄우던
백제사신길

백제사신길은 인천시 연수구가 새롭게 조성한 도보 여행길이다. 1600여 년 전, 중국을 오가던 백제 사신이 밟던 길이 4km로 이어진다. 백제 사신들이 중국으로 가기 전에 가족의 이름을 세 번 불렀다는 데서 지명이 유래한 문학산 삼호현에서 시작해 백제 사신을 태운 배가 출발할 시기를 점치던 능허대지까지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신들은 능허대에서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때를 맞춰 능허대 아래 한나루에서 배에 탔다고 한다. 백제 사신의 발자취를 좇아 걸어 보자. 성인 걸음으로 약 1시간이 소요된다.

옛 이야기 한 그릇
인천 올드타운 맛길

인천에서 나고 자란 풍성한 식재료로 맛을 낸 음식, 올드타운을 지켜온 인천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는 요리 비법으로 만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인천 올드타운 맛길 10가지를 소개한다.

차이나타운 짜장면거리

인천 차이나타운은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된 이후, 중국인이 모여 살기 시작하던 곳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짜장면을 판매한 곳으로 알려진 '공화춘' 건물을 단장해 문을 연 '짜장면 박물관'도 있다.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일대

동인천 삼치거리

40여 년 전부터 막걸리 안주로 삼치를 구워 팔던 식당이 단골을 모으면서 거리가 형성되었다. 소금으로만 간해 굽거나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하게 양념해 굽는데, 각기 다른 매력이 있다.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일대

화평동 세숫대야냉면거리

1980년대 중반부터 싸고 맛좋은 냉면집들이 들어서며 입소문을 탔다. 1990년대부터는 인근 공장 노동자를 위해 냉면을 푸짐하게 담아 내면서 세숫대야 냉면이 유행하게 되었다.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로 일대

송현동 순대골목

1960년대 수문통 시장이 열리고, 항만과 공장 노동자들이 부담없이 끼니를 챙길 수 있는 순댓국밥집이 하나둘 늘어 지금의 순대골목을 형성했다. 진한 국물과 돼지 부속고기가 일품.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일대

연안부두 밴댕이회무침거리

연안부두 옆 해양센터는 밴댕이회무침을 주로 팔아 '밴댕이 건물'로 불린다. 온갖 양념에 버무린 밴댕이 회무침은 매콤하면서도 고소하다. 회덮밥으로 먹어도 맛있다.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일대

용현동 물텀벙이거리

물텀벙이는 과거에 인천 어부들이 살이 없고 못생긴 아귀가 그물에 걸리면 물에 '텀벙' 소리가 나게 던져버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탕으로 먹으면 국물 맛이 시원하고, 양념해 찜으로 먹어도 별미다.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일대

학익동 홍어회 거리

1978년, 한 식당에서 판매하던 홍어 무침이 명성을 얻으면서부터 주변에 홍어 횟집이 늘어나게 되었다. 홍어회 무침과 홍어 찜이 주 메뉴이며, 홍어회 무침에 쓱싹 비벼먹는 밥도 별미다.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일대

연락골 추어마을

논농사를 짓던 평범한 농촌 마을 연락골 사람들은 논에서 잡히는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끓여 즐겨 먹었다고 한다. 그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추어탕 전문 음식점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요즘에는 등산객이 많이 찾는다.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인로·연락골로 일대

송도 꽃게거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유명하다. 요즘에는 냉장 시설이 발달해 사시사철 속이 꽉 찬 꽃게를 맛볼 수 있는데, 특히 꽃게 철인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로·대암로 일대

강화 더리미 장어마을

한강 민물과 서해 바닷물이 만나는 더리미 포구에는 신선한 장어를 구워 파는 음식점이 즐비하다. 담백한 맛을 좋아한다면 소금구이가, 매콤한 맛을 즐긴다면 양념구이가 좋다.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더리미길 일대